

R-6. 발치 창에 삽입한 임시 수복물의 치은형태 보존 효과

이진규, 이주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치주 치료의 목적 중의 하나는 심미성의 증진이다. 그리고 치주 심미에 있어서 치간 유두의 존재와 형태는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발거한 치아의 치근을 다듬은 후 발치 직후의 발치 창에 삽입한 임시 수복물이 1)발치창 인접 치간 유두의 보존과 2)발치 후 치은의 협설폭경의 보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발치와에 인접한 치간 치조골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3)발치와에 인접한 치간 유두의 변화관계, 4)발치와의 수직적인 골 침착량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및 재료

이번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 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상, 하악 전치부에 치주 질환으로 인한 골소실로 1개 이상의 발치가 예정된 치아를 가진 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강 위생 교육과 치근 활택술을 포함한 전악에 걸친 초기 치주 치료후에 해당치아를 발거하고, 치근을 다듬은 후 다시 발치와에 삽입하여 인접치아와 자가중합레진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술 전(Baseline)과 술 후 1, 3, 6, 9, 12 개월마다 치간 유두의 변화와 발치와의 치은의 협설폭경의 변화를 측정하고, 술 후 6, 12개월에 실험부에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채득하였다. 술 전과 술 후의 방사선 사진을 통해 발치한 치아 인접치의 치간 치조골의 상대적 수준과, 발거 대상 치아와 발치와의 상대적인 수직적 골 수준을 측정하였다. 발치와에 인접한 치간 치조골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발치와에 인접한 치간 유두의 변화관계와 발치와의 수직적인 골 침착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발치 직후 발치 창에 삽입한 임시 수복물을 이용하여 12개월 후의 근심과 원심에서 인접 치간 유두의 변화와 발치와 치은의 협설폭경의 변화는 각각 $-1.06 \pm 0.48\text{mm}$, $-0.84 \pm 0.50\text{mm}$, $-1.50 \pm 0.96\text{mm}$ 로 나타났다. 발치 후 발치와의 인접 치간 유두의 퇴축 정도와 발치와의 치은의 협설폭경의 변화는 발치 후 1개월의 변화가 가장 컸다. 발치 후 발치와의 인접 치간 유두의 퇴축 정도는 치간 유두 하방의 잔존골이 많을수록 적었다. ($p=0.028$) 발거한 치아 인접치의 치간 유두가 높을수록 발치와의 골침착량이 많았다($p<0.001$).

결론

발치 창에 즉시 삽입한 임시 수복물은 발치 후 발치 창의 인접 치간 유두와 협설폭경의 퇴축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발치와의 인접 치간 치조골의 높이가 높을수록 인접 치간 유두의 퇴축량도 적으며, 발치 후 침착되는 골의 양도 많았다.